논어 7편 술이 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默而識之，學而不厭，誨人不倦，何有於我哉？」

독음 · 자왈 묵이지지 학이불염 회인불권 하유어아재

쉬운 풀이(요약) · 조용히 기억하고, 배우기를 싫증내지 않으며, 남을 가르치는 데 지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默 묵묵할 묵 묵 / 而 말이을 이

識 알 식 식 / 之 갈 지 / 學 배울 학 / 不 아닐 불

厭 넉넉할 염 염 / 誨 가르칠 회 회 / 人 사람 인 / 倦 게으를 권 권

何 어찌 하 하 / 有 있을 유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我 자기 아 아

哉 비로소 재 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